

증도가자의 문화재청 검증에 대한 문제점*

- 조판 실험의 광곽 크기를 중심으로 -

A Question on the Verific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bout Jeungdoga-type

- Focusing on the Printing Plate Size of the Experiment of Typesetting -

유 부 현 (Yoo, Boo-Hyun)**

◁ 목 차 ▷

- | | |
|-----------------------------|----------------------------|
| 1. 서 언 | 3. 『향례합편』의 활자본과 번각본의 광곽 크기 |
| 2. 문화재청의 증도가자 조판 검증 결과와 문제점 | 4. 결 언
<참고문헌> |

< 초 록 >

본 연구에서는 증도가자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 문화재청의 조판 실험 가운데 광곽의 크기에 대한 문화재청의 주장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광곽의 크기에 대한 활자본과 번각본의 관계에 대해서 『향례합편』을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청의 수치상 조판실험 가운데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판 실험(제2차 실험 가운데, 평균 크기의 활자와 번각본의 최대 광곽 변화율이 적용된 실험)에 의거한다면 증도가자의 조판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할 것으로 판명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향례합편』의 활자본과 번각본의 광곽 길이를 조사하여 제시하였는데, 활자본의 경우는 그 번각본에 비해 평균 0.52cm가 길고, 가장 많이 긴 경우(제42장)는 0.95cm가 길며, 가장 적게 긴 경우(제40장)는 0.15cm가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번각본의 평균 광곽 길이를 가지고 활자본의 광곽 크기로 추정하는 문화재청의 『증도가』 활자본 광곽 크기의 추정 방식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要語: 증도가자, 활자본, 번각본, 향례합편, 문화재청

* 본 논문은 2017년도 춘계 한국서지학회 학술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大眞大學校 文獻情報學科 教授(boohyun@daejin.ac.kr)

접수일: 2018년 2월 13일 최초심사일: 2018년 3월 7일 게재확정일: 2018년 3월 12일
서지학연구, 제73집, 53-61, 2018. [https://doi.org/10.17258/jib.2018..73.53]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sistence and questions from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bout the Printing Plate size in the process of the Administration's experiment of Typesetting, which becomes important grounds for finding out the truth of Jeungdoga-type. Also, it specifically analyzed the relations between hwaljabon and beongakbon to the Printing Plate size targeting *Hyangryehappyun*. The concis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proved that the Typesetting of Jeungdoga-type is not impossible but possible on the basis of the most realistic and reasonable experiment of Typesetting, which includes the average sized hwalja and the most Printing Plate rate of change in the second experiment, among the experiments of the figure from the Administration.

Secondly, it is investigated that in the case of hwaljabon, it is 0.52cm longer than the beongakbon on the average, 0.95cm longer in the longest case (chapter 42), 0.15cm longer in the least long case (chapter 40) from the investigation contents about the results of the length of Printing Plate of hwaljabon and beongakbon of *Hyangryehappyun*.

Key words: Jeungdoga-type, hwaljabon, beongakbon, *Hyangryehappyu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1. 서 언

활자본은 광곽(인쇄된 책자의 먹선 테두리)의 크기가 거의 동일하고 해당 활자본의 번각본(飜刻된 목판본)에 비하여 크다. 일반적으로 번각본은 그 활자본에 비하여 광곽의 크기가 작고 장마다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 번각본의 판목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수축의 정도가 심해진다. 즉 광곽의 크기가 더욱 더 작아지게 된다. 또한 번각본(즉 목판본) 각 장의 광곽 크기는 목판의 수축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것은 첫째 1797년에 출판된 『향례합편』 활자본과 이를 번각하여 출판된 번각본, 둘째 1742년에 운관(芸館, 즉 校書館)에서 간행된 『동몽선습』 목판본과 1819년 춘방(春坊, 즉 世子侍講院)에서 이를 번각하여 출판된 번각본의 초인본(初印本) 및 후인본(後印本), 셋째 1668년에 주조된 무신자(戊申字)로 인출한 『논어언해』 활자본과 1820년 내각(內閣, 즉 奎章閣)에서 번각된 목판본 그리고 1822년 영영(嶺營, 즉 慶尙道 監營)에서 번각된 목판본을 다시 번각한 재번각본 등에서 확인된다. 그래서 활자본 광곽의 크기는 그 번각본의 가장 큰 크기보다 어느 정도 큰 크기로 추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증도가자 조판 실험의 경우, 제1차의 수치상(數値上) 증도가자 조판 실험에서는 『증도가』 번각본에 의거하여 『증도가』 활자본 광곽의 크기를 세로의 경우 최소(17.3cm) / 최대(18.6cm) / 평균(18.3cm) 등으로 설정하여 가상적인 수치상(數値上) 조판 실험을 하였지만, 제2차의 수치상(數値上) 증도가자 조판 실험에서는 번각본의 광곽 변화율(즉 목판의 수축률)을 적용하여 『증도가』 활자본 광곽의 크기를 세로의 경우 최소(18.2cm) / 최대(19.8cm) / 평균(19.5cm) 등으로 설정하여 가상적인 수치상(數値上) 조판 실험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조판 틀을 제작하여 증도가자의 모형 활자를 식자해 보는 조판 실험에서는, 『증도가』 번각본 광곽의 최소 최대 평균 크기 및 광곽 변화율(즉 목판의 수축률)이 적용된 광곽의 최소 최대 평균 크기 가운데, 『증도가』 번각본의 평균 광곽 크기가 적용된 조판 틀을 만들어 진행하였다. 그리고는 증도가자로 조판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기초적인 활자본 광곽 크기의 잘못된 추정으로 인해 발생한 잘못된 결론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증도가자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 문화재청의 조판 실험 가운데 광곽 크기의 추정에 대한 문화재청의 주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광곽의 크기에 대한 활자본과 번각본 관계에 대해서 『향례합편』의 활자본과 번각본을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해 볼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문화재청의 잘못된 증도가의 검증 결과를 바로 잡는데 하나의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2. 문화재청의 증도가자 조판 검증 결과와 문제점

여기에서는 우선 문화재청에서 『증도가』 번각본에 의거하여 『증도가』 활자본 광곽의 크기를 세로의 경우 최소(17.3cm) / 최대(18.6cm) / 평균(18.3cm) 등으로 설정하여 진행한 제1차의 수치상(數値上) 증도가자 조판 실험 결과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번각본의 광곽 변화율(즉 목판의 수축률)을 적용하여 『증도가』 활자본 광곽의 크기를 세로의 경우 최소(18.2cm) / 최대(19.8cm) / 평균(19.5cm) 등으로 설정하여 진행한 제2차의 수치상(數値上) 증도가자 조판 실험 결과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문화재청에서 『증도가』 번각본에 의거하여 『증도가』 활자본 광곽의 크기를 세로의 경우 최소(17.3cm) / 최대(18.6cm) / 평균(18.3cm) 등으로 설정하여 진행한 제1차의 수치상(數値上) 증도가자 조판 실험 결과를 소개하면 <표 1> “『증도가』 번각본에 의거하여 『증도가』 활자본 광곽의 크기를 설정하여 진행한 문화재청의 제1차의 수치상(數値上) 증도가자 조판 실험 결과 내용(<문화재청 보도자료>(2017.4.13.))”과 같다.

<표 1> 『증도가』 번각본에 의거하여 『증도가』 활자본 광곽의 크기를 설정하여 진행한 문화재청의 제1차의 수치상(數値上) 증도가자 조판 실험 결과 내용(<문화재청 보도자료>(2017.4.13))

홈형	현존 번각본 광곽 실측치 적용(mm)				홈 날개형	현존 번각본 광곽 실측치 적용(m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세로 1행 15자		173.0	186.0	183.0	세로 1행 15자		173.0	186.0	183.0
	최소 4(一)	가능 (11.10×15=166.5)	가능	가능		최소 1(切)	가능 (10.10×15=151.5)	가능	가능
	최대 18(衆)	불가 (13.90×15=208.5)	불가	불가		최대 9(普)	불가 (14.30×15=214.5)	불가	불가
	평균 12.50	불가 (12.50×15=187.5)	불가	불가		평균 13.0	불가 (13.0×15=195.0)	불가	불가
가로 8행		122.0	129.0	126.0	가로 8행		122.0	129.0	126.0
	최소 19(源)	가능 (11.80×8=94.40)	가능	가능		최소 43(心)	가능 (12.90×8=103.20)	가능	가능
	최대 27(福)	가능 (14.10×8=112.8)	가능	가능		최대 29(令)	불가 (17.10×8=136.8)	불가	불가
	평균 13.10	가능 (13.10×8=104.8)	가능	가능		평균 15.9	불가 (15.9×8=127.2)	조건부 가능 (무계선에 한정)	불가

이 제1차의 수치상 조판 실험 결과를 보면, 증도가자로는 『증도가』의 조판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활자본 광곽의 크기는 번각본 최대의 크기보다 어느 정도 크게 추정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증도가』 번각본의 최소/최대/평균의 광곽 크기를 적용한 이 조판 실험은 지극히 현실성이 없는 실험 불가한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재청에서 번각본의 광곽 변화율(즉 목판의 수축률)을 적용하여 『증도가』 활자본 광곽의 크기를 세로의 경우 최소(18.2cm) / 최대(19.8cm) / 평균(19.5cm) 등으로 설정하여 진행한 제2차의 수치상(數値上) 증도가자 조판 실험 결과를 소개하면 <표 2> “번각본의 광곽 변화율(즉 목판의 수축률)을 적용하여 진행한 문화재청의 제2차의 수치상(數値上) 증도가자 조판 실험 결과 내용(<문화재청 보도자료>(2017.4.13))”과 같다.

<표 2> 번각본의 광곽 변화율(즉 목판의 수축률)을 적용하여 진행한 문화재청의 제2차의 수치상(數値上) 증도가자 조판 실험 결과 내용{<문화재청 보도자료>(2017.4.13)}

홈형	광곽 변화율 적용(mm)			홈 날개형	광곽 변화율 적용(m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세로 1행 15자		179.4 〈182.1 〈184.6	192.9 〈195.8 〈198.4	189.8 〈192.6 〈195.2		179.4 〈182.1 〈184.6	192.9 〈195.8 〈198.4	189.8 〈192.6 〈195.2
	최소 4(一)	가능 (11.10×15=166.5)	가능	가능	최소 1(切)	가능 (10.10×15=151.5)	가능	가능
	최대 18(衆)	불가 (13.90×15=208.5)	불가	불가	최대 9(普)	불가 (14.30×15=214.5)	불가	불가
	평균 12.50	불가 (12.50×15=187.5)	가능	가능	평균 13.0	불가 (13.0×15=195.0)	일부(?) 가능	불가
가로 8행		123.1〈123.9〈125.1	130.2 〈131.0 〈132.3	127.1 〈128.0 〈129.2		123.1〈123.9〈125.1	130.2 〈131.0 〈132.3	127.1 〈128.0 〈129.2
	최소 19(源)	가능 (11.80×8=94.40)	가능	가능	최소 43(心)	가능 (12.90×8=103.20)	가능	가능
	최대 27(福)	가능 (14.10×8=112.8)	가능	가능	최대 29(令)	불가 (17.10×8=136.8)	불가	불가
	평균 13.10	가능 (13.10×8=104.8)	가능	가능	평균 15.9	불가 (15.9×8=127.2)	조건부 가능 (무계선에 한정?)	조건부 가능 (무계선에 한정)

광곽 변화율은 『석보상절』 주자본 → 번각본의 세로 최대 93.74%, 최소 96.41%, 평균 95.00% 그리고 가로 최대 97.52%, 최소 99.11%, 평균 98.46%를 번각본 『증도가』에 적용하여 산출한 활자본 『증도가』의 광곽 예측치임

이 제2차의 수치상 조판 실험 결과를 보면, 경우에 따라 일부는 『증도가』의 조판이 가능하고 일부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첫째, 활자 조판의 경우에 동일 글자에 대해 다양한 크기의 활자가 존재할 때 일부러 가장 작은 활자 또는 가장 큰 활자만을 골라서 조판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둘째, 활자본 광곽의 크기는 번각본 최대의 크기보다 어느 정도 크게 추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광곽 변화 예측치를 적용한 조판 실험 가운데 평균 크기의 활자와 최대의 광곽 크기를 적용한 조판 실험만이 현실성이 있다. 이 경우 증도가자의 조판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화재청의 수치상 조판실험 가운데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판 실험(즉 제2차 실험 가운데, 평균 크기의 활자와 번각본의 최대 광곽 변화율(즉 목판의 수축률)이 적용된 실험)에 의거한다면 증도가자의 조판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증도가』 번각본의 평균 광곽 크기가 적용된 조판 틀을 제작하여 조판 실험을 진행하고, 증도가자로는 『증도가』의 실제 조판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 『향례합편』의 활자본과 번각본의 광곽 크기

여기에서는 1797년에 출판된 『향례합편』의 활자본과 그의 번각본¹⁾의 광곽 크기를 대조 분석하여 활자본의 광곽 크기는 번각본의 광곽 크기 중 최대의 크기보다 어느 정도(0.5cm~1cm) 더 크게 추정되어야 하고, 번각본의 평균 광곽 길이를 가지고 활자본의 광곽 크기로 추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증명해 보고자 한다.

『향례합편』 제1권의 활자본과 그의 번각본에서 실측한 광곽의 세로 길이와 번각본에서 줄어든 길이를 산정해서 소개하면 다음의 <표 3>과 <표 4>와 같다. 표에 나타나듯이 『향례합편』의 활자본의 경우는 그 번각본에 비해 평균 0.52cm가 길고, 가장 많이 긴 경우(제42장)는 0.95cm가 길며, 가장 적게 긴 경우(제40장)는 0.15cm가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번각본의 평균 광곽 길이를 가지고 활자본의 광곽 크기로 추정하는 문화재청의 『증도가』 활자본 광곽 크기의 추정 방식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해주는 확실한 증거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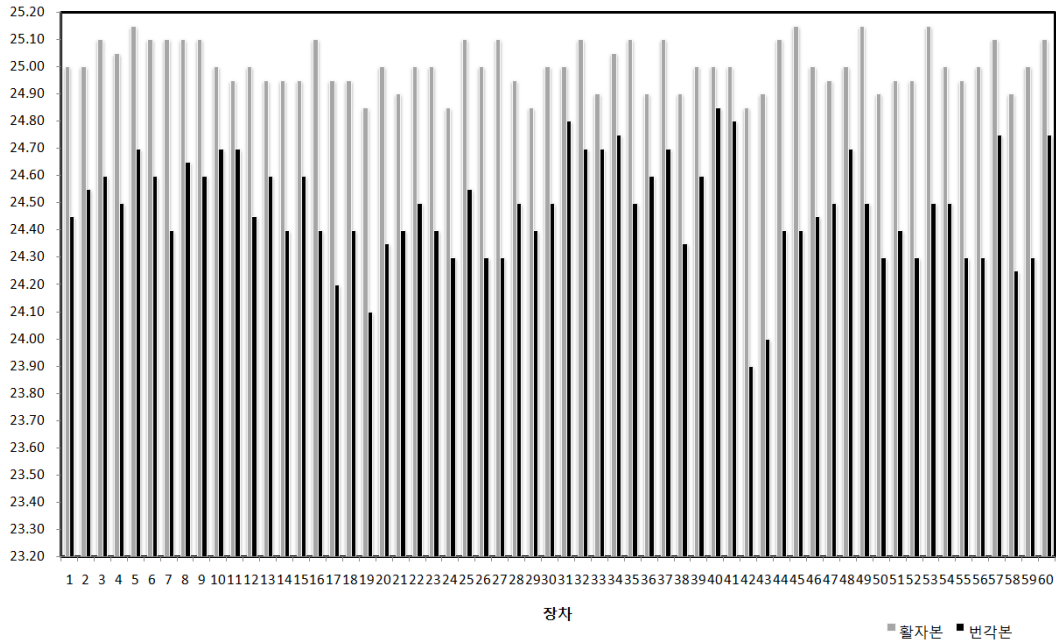
1) 본 연구에 활용된 『향례합편』의 활자본과 번각본은 필자 소장본임.

증도가자의 문화재청 검증에 대한 문제점

<표 3> 『향례합편』 제1권{윤음(1~4)/목록(1)/총서(1~16)/본문(1~39)}의 광곽 세로 길이(cm)

장차 ①	장차 ②	활자본	번각본	번각본의 수축길이	장차 ①	장차 ②	활자본	번각본	번각본의 수축길이	장차 ①	장차 ②	활자본	번각본	번각본의 수축길이
1	1	25.00	24.45	0.55	21	16	24.90	24.40	0.50	41	20	25.00	24.80	0.20
2	2	25.00	24.55	0.45	22	1	25.00	24.50	0.50	42	21	24.85	23.90	0.95
3	3	25.10	24.60	0.50	23	2	25.00	24.40	0.60	43	22	24.90	24.00	0.90
4	4	25.05	24.50	0.55	24	3	24.85	24.30	0.55	44	23	25.10	24.40	0.70
5	[1]	25.15	24.70	0.45	25	4	25.10	24.55	0.55	45	24	25.15	24.40	0.75
6	1	25.10	24.60	0.50	26	5	25.00	24.30	0.70	46	25	25.00	24.45	0.55
7	2	25.10	24.40	0.70	27	6	25.10	24.30	0.80	47	26	24.95	24.50	0.45
8	3	25.10	24.65	0.45	28	7	24.95	24.50	0.45	48	27	25.00	24.70	0.30
9	4	25.10	24.60	0.50	29	8	24.85	24.40	0.45	49	28	25.15	24.50	0.65
10	5	25.00	24.70	0.30	30	9	25.00	24.50	0.50	50	29	24.90	24.30	0.60
11	6	24.95	24.70	0.25	31	10	25.00	24.80	0.20	51	30	24.95	24.40	0.55
12	7	25.00	24.45	0.55	32	11	25.10	24.70	0.40	52	31	24.95	24.30	0.65
13	8	24.95	24.60	0.35	33	12	24.90	24.70	0.20	53	32	25.15	24.50	0.65
14	9	24.95	24.40	0.55	34	13	25.05	24.75	0.30	54	33	25.00	24.50	0.50
15	10	24.95	24.60	0.35	35	14	25.10	24.50	0.60	55	34	24.95	24.30	0.65
16	11	25.10	24.40	0.70	36	15	24.90	24.60	0.30	56	35	25.00	24.30	0.70
17	12	24.95	24.20	0.75	37	16	25.10	24.70	0.40	57	36	25.10	24.75	0.35
18	13	24.95	24.40	0.55	38	17	24.90	24.35	0.55	58	37	24.90	24.25	0.65
19	14	24.85	24.10	0.75	39	18	25.00	24.60	0.40	59	38	25.00	24.30	0.70
20	15	25.00	24.35	0.65	40	19	25.00	24.85	0.15	60	39	25.10	24.75	0.35
판본														
광곽 세로 길이					활자본		번각본		번각본의 수축길이					
최대					25.15cm		24.85cm		0.95cm(제42장)					
최소					24.85cm		23.90cm		0.15cm(제40장)					
평균					25.00cm		24.48cm		0.52cm					
평균길이와 최대·최소 길이의 차이					+0.15cm / -0.15cm		+0.37cm / -0.58cm							

<표 4> 『향례합편』 제1권(1~60)의 광곽 세로 길이(cm)
 (막대 그래프에서 진한색은 번각본의 길이이고, 옅은 색은 활자본의 길이임)



4. 결 언

본 연구에서는 증도가자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 문화재청의 조판 실험 가운데 광곽의 크기에 대한 문화재청의 주장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광곽의 크기에 대한 활자본과 번각본의 관계에 대해서 『향례합편』을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청의 수치상 조판실험 가운데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판 실험(제2차 실험 가운데, 평균 크기의 활자와 번각본의 최대 광곽 변화율이 적용된 실험)에 의거한다면 증도가자의 조판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향례합편』의 활자본과 번각본의 광곽 길이를 조사하여 제시하였는데, 활자본의 경우는 그 번각본에 비해 평균 0.52cm가 길고, 가장 많이 긴 경우(제42장)는 0.95cm가 길며, 가장 적게 긴 경우(제40장)는 0.15cm가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번각본의 평균 광곽 길이를 가지고 활자본의 광곽 크기로 추정하는 문화재청의 『증도가』 활자본 광곽 크기의 추정 방식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도 우리는 번각본 광곽의 평균 크기를 기준으로 한 문화재청의 방법에 따라 『향례합편』을 비롯한 모든 활자본의 조판 실험을 할 경우 조판이 가능한 경우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참고문헌>

문화재청. <고려금속활자 지정조사 분석결과 보고서>. 2016. 12. 30.

문화재청. <증도가자(고려금속활자) 보물 지정 신청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검토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7. 4. 13.

『향례합편』 (1797년에 출판된 활자본)

『향례합편』 (1797년 이후 번각하여 출판된 번각본)

『동몽선습』 (1742년에 芸館에서 간행된 목판본)

『동몽선습』 (1819년 春坊에서 번각하여 출판된 번각본의 初印本)

『동몽선습』 (1819년 春坊에서 번각하여 출판된 번각본의 後印本)

『논어언해』 (1668년에 주조된 戊申字로 인쇄된 활자본)

『논어언해』 (1820년 內閣에서 번각된 목판본)

『논어언해』 (1822년 嶺營에서 內閣의 번각본을 번각한 재번각본)

